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충남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

Investigation for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for the older adults in Chungnam province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문준호*

Moon, Joonho

Abstract

Chungnam Province is experiencing significant demographic aging, making it crucia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develop effective welfare polic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in Chungnam. The independent variables analyzed include labor participation, social engagement, Engel coefficient, medical expenditure, and clothing expenditur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drawn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covering the period from 2000 to 2018, with a total of 767 observ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engagement and clothing expendit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while labor participation and the Engel coefficien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in Chungnam,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policymakers aiming to enhance the well-being of the aging population.

주제어 : 노인 삶의 질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노동 여부 (Labor), 친목
모임 참여 (Social gathering), 엥겔지수 (Engel's coefficient), 피복 비용
(Cloth expenditure)

*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joonhomo0412@gmail.com

I. 서 론

통계청(2023)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6월 기준 18.5%인 반면, 충남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4%에 달한다. 이는 충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홍백의 (2005)는 노인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충남 지역에서 고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노인특성의 이해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충남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로, 이에 관한 결정요인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김송이, 2020; 김은향, 2022; 변금선·김기현, 2019; 이소영, 2022; 이영균·김동규,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질이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수 연구에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동여부, 친목모임참여, 앵겔 지수, 의료 비용, 피복 비용을 포함한다. 노동은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화된 노인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주장으로부터 삶의 질에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였다(김상구, 2009; 김효정, 2010; 심용출·나동석 2015; 홍세영, 2011). 다음으로, 기존 문헌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것이 노인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친목모임참여를 삶의 질의 선행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권혁철, 2019; 김은정·민주홍 2022; 원서진, 2020; 임지혜·김재우, 2020). 또한, 본 연구는 앵겔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앵겔 지수는 개인이 삶을 위하여 음식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을 의미하며 높은 앵겔 지수는 삶의 다른 부분을 돌보는데 필요한 다른 부분의 자원의 투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에 근거하여 변수로 선택하였

다(김봉근·정철·이준원, 2015; 김완중, 2021; 박성환·이도희, 2015; 이현주, 2005). 선행연구들은 노년기는 건강관리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박용순, 2019; 안석·김남훈·김유나, 2019; 임미영·유호신, 2001; 정형선·송양민·이규식, 2007). 이는 의료비용이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 비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피복 비용을 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피복 비용은 노인의 사회 생활 및 신체를 가꾸는 하나의 행위로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박창숙·정영주·김호석, 2022; 이민선·박해림·양호정, 2022; 정지은·추미선·정수진, 2020; 최수경·추미선, 201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질의 선행요인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독립변수로 노동여부, 친목모임참여, 앵겔 지수, 의료 비용, 피복 비용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충남지역이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다소 미미하게 수행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고령화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이해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도출된 정보는 노인복지관련 정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및 연구 가설 도출

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이소영, 2022; 이영균·김동규, 2007). 즉, 높은 삶의 질은 자신이 처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향, 2022; 변금선·김기현, 2019). 삶의 질은 여러 연구 영역에서 활발하게 탐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송이(2020)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삶의 질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신승배(2018)와 김은향(202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변금선·김기현(2019)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제시하였고, 김진옥(2018)은 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소영(2022)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삶의 질은 노인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김미령(2006)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으며, 홍성희(2016)와 김경연·이경준(2023)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선행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한재원·이수기(2019)는 노인의 특성 연구에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질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삶의 질의 결정요인

1) 노동여부

노동은 개인이 급여를 벌고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다(김상구, 2009; 홍세영, 2011). 노동은 개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김효정, 2010; 심용출·나동석, 2015). 노인들의 경우는 육체적 정신적 체력이 대부분 쇠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이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강이주·이영애, 2010; 장우찬, 2017; 허성호·김종대·정태연 2011). 실제로 김수영·오혜인(2022)은 노인들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을 하는 경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저하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장우찬(2017)은 노동이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는 하지만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근로는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문헌의 주장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노동여부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친목모임참여

친목 모임 참여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권혁철, 2019; 원서진, 2020; 임지혜·김재우, 2020). 사회의 개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독사와 고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목 모임 참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강주영, 2020; 김은정·민주홍, 2022). 즉,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만나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혁철, 2019; 원서진, 2020; 임승자, 2019). 이러한 특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김가원·황혜신(2021)은 1인 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목 모임 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으며, 허성호·김종대(2011)는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친목모임참여가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친목모임참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앵겔지수

앵겔 지수는 개인의 전체 생활비에서 식비 관련 비용들의 지출을 의미한다(김완중, 2021; 박성환·이도희, 2015; 이현주, 2005). 선행연구들은 앵겔 지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자원을 음식에 많이 투입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여유자금의 줄어드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영역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한다(김봉근 외, 2015; 현은주·김봉근, 2017). 즉, 앵겔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삶의 여건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의미한다(이현주, 2005; 정성은, 2020). 실질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앵겔 지수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오윤희·김순미(2015)는 가계의 앵겔 지수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앵겔 지수의 삶의 질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이수용·나운환, 2017; 이수용·송창근, 2017).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앵겔지수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의료비용

의료비용은 개인이 자신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김진구, 2008; 임미영·유호신, 2001). 의료비용은 노화가 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박용순, 2019; 정완교, 2012; 정형선 외, 2007). 이러한 이유로, 노인 연구 영역에서 의료비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의료 비용은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고정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비중이 큰 경우 다른 삶을 돌보기 위한 이용 가능한 금전의 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진구, 2008; 박용순, 2019; 안석 외, 2019).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삶

의 질이 과도한 의료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노인영, 2001; 안석 외, 2019; 이선애·허만세, 202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 의료비용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피복비용

피복비용은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김순심, 2004; 한경님, 2010). 의류의 구매는 기분전환 및 사회적 모임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정지은 외, 2020; 최수경·추미선, 2014). 기존문헌들은 노년기에 외모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 의복과 같은 자기선물적 지출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지출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박창숙 외, 2022; 이민선 외, 2022). 실제로 선행연구는 의복에 대한 소비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이민선 외, 2022; 정지은 외, 2020; 최수경·정수진·추미선, 2014). 이는 피복비가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형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5: 피복비용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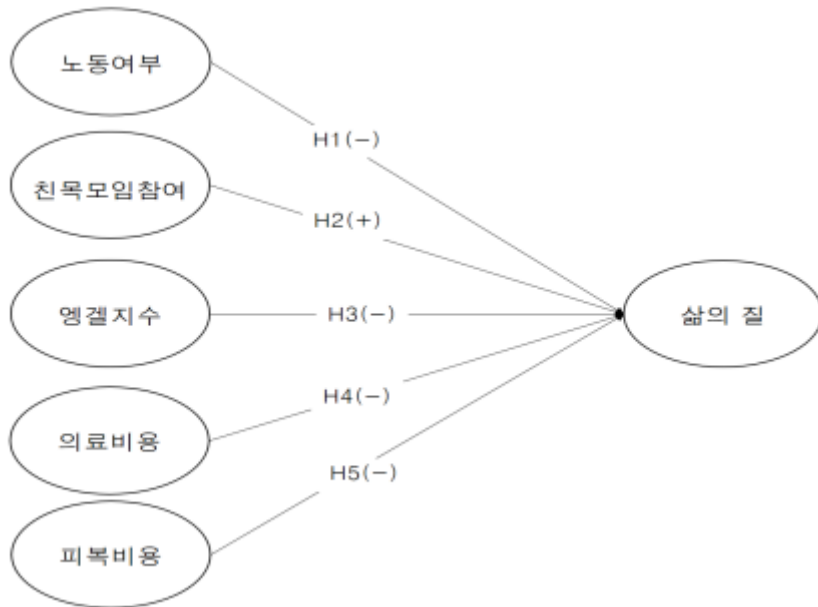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자료수집

<그림 1>은 본 연구의 모형이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며 다섯 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5개의 독립변수는 노동여부, 친목모임참여, 앵겔지수, 의료비용, 피복비용을 포함한다. 노동여부, 앵겔지수, 의료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친목모임참여와 피복비용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는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고령화 패널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을 기반으로 한 패널데이터이다. 패널데이

터는 다수의 연도와 다수의 설문 참여자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Gujarat & Porter, 2009; Wooldridge, 2009). 고령화 패널데이터는 2년마다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2018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최신의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사례를 추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있는 지역코드 34를 활용하여 충남만의 사례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767부의 표본을 자료분석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측정

〈표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은 0=매우 나쁨, 100=매우 좋음으로 측정하였다. 노동여부(0 = 비노동, 1 = 노동), 친목모임참여 (0 = 비참여, 1 = 참여), 성별 (0= 남성, 1= 여성)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앵겔지수는 월간 식비를 월간 생활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의료비용은 월간 의료비는 월간 생활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피복비용은 월간 피복비를 월간 생활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나이는 설문참여자의 출생년도에 기반한 나이를 이용하였으며 보유자산은 설문참여자의 보유자산으로 단위는 만원으로 측정되었다.

〈표 1〉 변수 측정

변수명	측정
삶의 질	0 = 매우 나쁨, 100 = 매우 좋음
노동여부	0 = 비노동, 1= 노동
친목모임참여	0 = 비참여, 1= 참여
앵겔지수	월간 식비/월간 생활비
의료비용	월간 의료비/월간 생활비
피복비용	월간 피복비/월간 생활비
나이	설문 참여자의 신체나이
성별	0 = 남성, 1= 여성
보유자산	설문 참여자의 보유자산 (단위: 만원)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수는 노동여부, 친목모임참여, 앵겔지수, 의료비용, 피복비용이며 통제변인으로는 나이, 성별, 보유자산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확률효과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패널데이터는 시간적인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정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결과를 동시에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최소자승법은 추정에 있어서 편차를 최소화하는 추정방법을 의미하고 고정효과를 다수의 시간관련 더미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하여 시간효과를 통제하는 추정방법을 지칭한다(Baltagi, 2008; Gujarat & Porter, 2009; Wooldridge, 2009). 고정효과는 회귀식에 비관측효과를 포함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회귀분석 방법을 의미한다(Baltagi, 2008; Wooldridge, 2009). 이와 같은 세 가지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하였으며 세 개의 회귀분석식으로부터 도출된 계수의 방향과 유의성을 바탕으로 가설검증결과를 판단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2>는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 삶의 질의 평균은 68.83 표준편차는 13.50으로 나타났다. 노동여부, 친목모임, 성별의 평균은 각각 0.36, 0.79, 0.57로 나타났다. 앵겔지수의 평균은 0.31로 나타났으며 의료비용의 평균은 0.0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비용의 평균은 0.06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평균은 72.19이며 표준편차는 9.69로 나타났고 보유자산의 평균은 17,672.57 표준편차는 13,688.95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질	68.83	13.50	0	90
노동여부	0.36	0.48	0	1
친목모임참여	0.79	0.40	0	1
앵겔지수	0.31	0.10	0.1	0.66
의료비용	0.07	0.05	0	0.3
피복비용	0.06	0.03	0	0.23
나이	72.19	9.69	55	98
성별	0.57	0.49	0	1
보유자산	17,672.57	13,688.95	200	113,000

<표 3>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삶의 질은 노동 여부 ($r = -.183, p < .05$), 앵겔 지수 ($r = -.236, p < .05$), 의료비용 ($r = -.130, p < .05$), 나이 ($r = -.196, p < .05$)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반면 친목 모임 참여 ($r = .166, p < .05$)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 여부는 친목 모임 참여 ($r = -.138, p < .05$)와 보유 자산 ($r = -.148,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앵겔 지수 ($r = .339, p < .05$), 의료비용 ($r = .327, p < .05$), 나이 ($r = .347, p < .05$), 성별 ($r = .227, p < .05$)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친목 모임 참여는 피복 비용 ($r = .111, p < .05$)과 보유 자산 ($r = .108, p < .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나이 ($r = -.256, p < .05$)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앵겔 지수는 의료비용 ($r = .444, p < .05$)과 피복 비용 ($r = .251, p < .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보유 자산 ($r = -.154,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의료비용은 피복 비용 ($r = .350, p < .05$)과 나이 ($r =$

.277, $p < .05$)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보유 자산 ($r = -.127$,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1.삶의 질	1							
2.노동여부	-.183*	1						
3.친목모임참여	.166*	-.138*	1					
4.엔겔지수	-.236*	.339*	-.045	1				
5.의료비용	-.130*	.327*	-.083	.444*	1			
6.피복비용	.094	.079	.111*	.251*	.350*	1		
7.나이	-.196*	.347*	-.256*	.192*	.277*	-.086	1	
8.성별	.052	.227*	-.053	-.003	-.019	-.125*	.004	1
9.보유자산	.070	-.148*	.108*	-.154*	-.127*	.040	-.193*	-.324*

Note: * $p < .05$

<표 4>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를 제시한다. 제시된 세 개의 계량경제모형은 통계적으로유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 .05$). 전반적인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여부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0.81$, $p < .05$). 친목모임참여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3.18$, $p < .1$). 엔겔지수($\beta = -28.71$, $p < .05$)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피복비용($\beta = 48.58$, $p < .05$)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 = 3.69$, $p < .05$). 전반적인 계수의 방향 및 유의성은 세 개의 모형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된 5개의 가설 중 H4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설이 채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계수, t값)	모형2(계수, t값)	모형3(계수, Wald)	분산팽창계수
절편	77.98(12.28)**	77.98(12.26)**	77.98(12.28)**	
노동여부	-0.81(-2.09)**	-0.81(-2.09)**	-0.81(-2.09)**	1.38
친목모임참여	3.18(1.93)*	3.18(1.93)*	3.18(1.93)*	1.05
엔겔지수	-28.71(-4.13)**	-28.69(-4.11)**	-28.71(-4.13)**	1.39
의료비용	5.43(0.34)	5.43(0.34)	5.43(0.34)	1.58
피복비용	48.58(2.58)**	48.55(2.57)**	48.58(2.58)**	1.30

나이	-0.09(-1.26)	-0.09(-1.25)	-0.09(-1.26)	1.34
성별	3.69(2.45)**	3.69(2.45)**	3.69(2.45)**	1.25
보유자산	7.09×10 ⁻⁵ (1.39)	7.11×10 ⁻⁵ (1.39)	7.09×10 ⁻⁵ (1.39)	1.23
F값	7.38**	6.55**	-	
Wald χ^2	-		59.07**	
R ²	.1249	.1249	.1249	

Note: *p<0.1, **p<0.05, 종속변수: 삶의 질

V. 결론

본 연구는 충남 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고령화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을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노동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지역 노인들은 친목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앵겔 지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충남 지역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자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비용은 충남 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는 사회적 활동과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로 이어지므로, 의료비용의 지출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의료비용은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용의 비중이 0.07로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용 부담이 크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 이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충남지역 노인들의 특성을 삶의 질을 통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지역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미미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충남지역 노인들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고 다수의 독립변수가 이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하여 충남지역 노인들의 특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여부(장우찬, 2017; 김수영·오혜인, 2022), 친목모임참여(허성호·김중대, 2011; 김가원·황혜신, 2021), 앵겔지수(오윤희·김순미, 2015; 이수용·송창근, 2017), 피복비용(최수경·추미선, 2014; 최수경 외, 2014)의 유의한 삶의 질의 결정요인에 대한 측면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외부타당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충남지역의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들의 노동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충남지역 노인정책은 친목 모임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은 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식비의 부담이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식비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피복비용에 대한 지원도 노인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점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는 남성 노인들의 삶의 질이 더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남성 노인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한정되어 있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삶의 질에 대한 선행요인을 탐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충남지역에만 한정 지어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와 관련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이주·이영애(2010).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동거유형이 건강수준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1031-1044.
- 강주영(2020). 사회참여활동이 고령자 인지기능 손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

- 촌 간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326-337.
- 권혁철(2019).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3), 135-160.
- 김가원·황혜신(2021). 노인 1 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76(1), 45-70.
- 김경연·이경준(2023). 노인의 여가 열정이 자기효능감, 여가몰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2), 99-123.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봉근·정철·이준원(2015). 소득분위별 생계비지수와 실질소득분배 추세. 국제경제연구, 21(1), 1-25.
- 김상구(2009).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일선행정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증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51-70.
- 김송이(202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423-431.
- 김수영·오혜인(2022).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본 빈곤노인의 노동. 사회복지연구, 53(3), 71-112.
- 김순심(2004). 의복비 지출 비용에 따른 의복 구매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연변 조선족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67-78.
- 김완중(2021).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한국 농촌경제의 상대적 성과 분석, 도농격차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2), 191-216.
- 김은정, 민주홍(2022).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3), 172-189.
- 김은향(2022). 청소년의 범불안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599-612.
- 김진구(2008). 노인의 의료이용과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39, 273-302.
- 김진옥(2018). 도시민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연기반 치유회복환경의 회복경험을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주의회복이론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2(7), 51-70.
- 김효정(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1), 1-33.
- 노인영(2001).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전, 후 정신장애인의 의료비용, 삶의 질, 가족 부담감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56-72.
- 박성환·이도희(2015). 대학 교육원가 정보의 활용 방안, 앵겔지수, 재정자립도, 효율

- 성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33(2), 195-215.
- 박용순(2019).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보건의료 본인부담비 차이 및 요인. 인문사회 21, 10(6), 867-882.
- 박창숙·정영주·김호석(2022). 자기선물 (Self-gifting) 외식소비동기가 정서적 가치, 행복감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8(4), 147-160.
- 변금선·김기현(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 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527-554.
- 신승배(2018). 한국 청소년 삶의 질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9(1), 195-217.
- 심용출, 나동석(2015).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경험 연구. 비판사회 정책, (49), 227-280.
- 안석·김남훈·김유나(2019). 농촌· 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82.
- 오윤희·김순미(2015). 가계의 앵겔계수, 엔젤계수 및 슈바베계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3(5), 1-24.
- 원서진(2020). 독거노인의 빈곤이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520-526.
- 이민선·박해림·양호정(2022). 시각장애인의 의복비 지출 현황 조사 및 타인 의존도와 행복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효능의 매개효과와 장애 수용의 조절효과 검증-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복식문화연구, 30(6), 842-860.
- 이선애·허만세(2020). 노인장기요양비용이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1), 147-175.
- 이소영(2022). 청년 1 인가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연구. 인문사회 21, 13(5), 1017-1031.
- 이수용·나운환(2017).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 측정을 통한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앵겔계수와 슈바베계수를 활용한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장애와 고용, 27(1), 115-153.
- 이수용·송창근(2017).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 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21(2), 139-167.
- 이영균·김동규(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현주(2005). 중국 식량수급의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59, 47-55.
- 임미영·유호신(2001). 전국 저소득층노인의 보건의료이용과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3), 589-599.
- 임승자(2019).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고립. 한국노년학, 39(2),

325-345.

- 임지혜·김재우(2020). 자살생각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및 사회관계와 활동참여의 조절 작용, 생애주기와 성별 차이 비교. *조사연구*, 21(1), 117-149.
- 장우찬(2017).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속가능한 노동, 복지 그 자체로서의 노동. *노동법학*, (63), 65-101.
- 정성은(2020). 앵겔 지수 높은 소학행 젊은이의 하루. *월간 한국노총*, 560, 44-44.
- 정완교(2012). 노인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4), 149-168.
- 정지은·추미선·정수진(2020). 노인의 주관적 신체 기능과 의복 행동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2), 497-507.
- 정형선·송양민·이규식(2007).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1), 95-116.
- 최수경·정수진·추미선(2014). 노년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4), 689-696.
- 최수경·추미선(2014).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5), 654-664.
- 통계청(2023). 고령인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한경님(2010).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 가계소득 연 3,600 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 한재원·이수기(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도시환경 분석-2016 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33-47.
- 허성호·김종대(2011).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2), 407-418.
- 허성호·김종대·정태연(2011). 취업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회지*, 31(4), 1103-1118.
- 현은주·김봉근(2017). 지역 간 물가지수 추정 앵겔곡선방법론의 정확도 검증과 실질 소득불평등도. *계량경제학보*, 28(2), 55-83.
- 홍성희(2016).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89-108.
-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홍세영(201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 특성. *노인복지연구*, 51, 165-190.

- Baltagi, B.(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Vol. 1), John Wiley & Sons.
- Gujarati, D., & Porter, D.(2009),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 Wooldridge, J.(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2024년 10월 19일 원고 접수

2025년 1월 13일 수정본 접수

2025년 1월 19일 최종 수정본 접수 및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필